



# PRESS RELEASE

배포일자: 2026년 1월 28일(수)

관련자료: 사진자료

## 제네시스, 오프로드 콘셉트카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 세계 최초 공개 〈X Skorpion Concept〉

- 27일[현지시각] UAE 룩알할리 사막에서 ‘제네시스 데저트 프리미어’ 행사 개최
- 오프로드 레저를 즐기는 고객으로부터 영감 받은 콘셉트 모델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 공개
- ... 기존 오프로드 차량에서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실용적인 편의 사양 갖춰
- ... 전갈의 강인한 자세를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언어로 우아하게 풀어내
- ... 신체 움직임 많은 오프로드 차량임에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내부 설계
- 다채로운 고객 경험 제공 위한 ‘콘셉트 모델 출시 전략’ 함께 공개
- ... 기존 디자인 방향성에 ▲럭셔리, ▲스포츠, ▲쿨 세 가지 감성 영역 추가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27 일(화, 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룩알할리(Rub' al Khali) 사막에서 ‘제네시스 데저트 프리미어 행사(Genesis Desert Premiere)’를 개최하고, 익스트림 오프로드 콘셉트카인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X Skorpion Concept)’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제네시스의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X Skorpion Concept)’는 오프로드 레저를 즐기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콘셉트 모델로, 기존 오프로드 차량과는 차별화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동시에 갖췄다.



# PRESS RELEASE

컨셉트 이름인 ‘스콜피오(Skorpio)’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생존하는 전갈에서 영감을 받았다. 극한의 조건에서 우아함을 잃지 않고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겠다는 컨셉트 모델의 지향점을 담고 있다.

현대차그룹 글로벌디자인본부 최고 디자인책임자(CDO) 겸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CCO)인 루크 동커볼게 사장은 “엑스 스콜피오 컨셉트는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혹독한 지형도 가로지를 수 있도록 설계된 특별한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객과의 감성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컨셉트 모델 출시 전략’을 발표했다.

## ■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 성능을 동시에 갖춘 ‘엑스 스콜피오 컨셉트’

‘엑스 스콜피오 컨셉트’의 외관은 전갈의 강인한 자세에서 영감을 얻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실용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표현했다.

전갈의 아치형 꼬리와 같은 유려한 곡선이 차체를 따라 흐르며,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투라인 헤드램프와 함께 균형과 대칭미를 강조한 외관은 전갈의 꼬리를 치켜든 모습처럼 당장이라도 달려 나갈 듯한 긴장감을 자아낸다.

또한 전갈을 연상시키는 블랙과 블루 컬러가 적용돼 햇빛 아래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발휘하며, 전갈의 분절된 몸체를 모티브로 한 외부 패널은 견고함을 유지하면서도 극한 환경에서 신속한 차체 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 PRESS RELEASE

실내는 신체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많은 오프로드 차량에서 운전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인체공학적인 시트와 직관적인 공조/인포테인먼트 조작계를 갖췄으며, 거친 주행 환경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랩 핸들이 배치됐다. 또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주행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슬라이딩 디스플레이가 장착됐다.

내부 소재로는 레이저 커팅으로 제작한 그라데이션 패턴의 스웨이드와 독특한 스티칭의 가죽이 사용됐으며, 무광과 유광 마감을 적절히 배합해 깊이감과 강렬함을 강조하고 제네시스만의 대담한 성격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모래언덕 등 험로에서의 최적화된 주행을 위해 ▲고성능 내연기관 엔진 ▲18 인치 비드락 휠 및 40 인치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 ▲전용 서스펜션 ▲브렘보 브레이크 등이 장착됐으며, 유리섬유, 카본섬유, 케블라 등의 소재를 활용해 차체 경량화와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이번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는 오프로드 내구 레이스 전문가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전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부품들을 실제 적용하는 등 제네시스만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말했다.

## ■ ‘럭셔리·스포츠·쿨’ 세 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콘셉트 모델 출시 전략 공개

이날 제네시스는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 공개’에 이어 세 가지 감성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콘셉트 모델 출시 전략’을 새롭게 소개했다.



# PRESS RELEASE

제네시스는 2016 년 뉴욕 콘셉트를 시작으로 엑스 그란 쿠페, 엑스 그란 컨버터블, 엑스 그란 이퀘이터 콘셉트 등 27 종의 콘셉트 모델들을 선보이며, 디자인 철학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기반으로 실험과 혁신을 거듭해왔다.

제네시스는 기존 콘셉트 모델들을 ‘럭셔리(Luxury)’, ‘스포츠(Sport)’, ‘쿨(Cool)’이라는 세 가지 감성 영역을 기준으로 세분화하고, 향후 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브랜드의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표현해 나갈 계획이다.

‘럭셔리(Luxury)’ 영역에는 한국적 정서를 기반으로 정교한 디테일을 중시하는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요소를 강조한 모델이 속한다. 대표적으로 G90 기반으로 제작된 엑스 그란 쿠페, 엑스 그란 컨버터블 등이 있다.

‘스포츠(Sport)’ 영역은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럭셔리 고성능을 정의하는 모델로, 단순한 출력 경쟁이 아닌 정제된 감성과 품격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주행 전반에서 여유 있는 퍼포먼스를 구현한다. GV80 쿠페, G90 윙백 콘셉트, GV60 마그마 콘셉트 등이 이를 대표한다.

‘쿨(Cool)’ 영역은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도전정신을 반영해 공감을 형성하는 모델로,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와 함께 엑스 그란 이퀘이터 콘셉트, GV80 데저트 에디션, GV60 아웃도어 콘셉트, GV70 아웃도어 콘셉트 등이 해당된다.

제네시스는 이러한 세 가지 감성 영역을 아우르는 콘셉트 모델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브랜드 영역 확장과 동시에 다채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PRESS RELEASE

루크 동커볼케 사장은 “콘셉트 모델은 우리의 비전에 영감을 주고 고객과의 감성적 유대를 형성하는 매개체”라며 “세 가지 감성 영역을 담아낸 콘셉트 모델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미래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네시스는 이날 행사에서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 외에도 ▲엑스 그란 쿠페 ▲엑스 그란 컨버터블 ▲G90 윙백 콘셉트 ▲엑스 그란 이퀘이터 콘셉트 ▲GV80 데저트 에디션 ▲GV60 아웃도어 콘셉트 ▲GV70 아웃도어 콘셉트 등을 함께 전시하며, 제네시스가 추구해온 콘셉트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을 한 자리에서 선보였다. [끝]

## <사진설명> 제네시스, 오프로드 콘셉트카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 세계 최초 공개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27 일(화, 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룩알할리(Rub' al Khali) 사막에서 ‘제네시스 데저트 프리미어 행사(Genesis Desert Premiere)’를 개최하고, 익스트림 오프로드 콘셉트카인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X Skorpio Concept)’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